

예술가와 수행자는 한끝 차이



나는 붓을 던져도 그림이 된다
박영택 지음
아름다운 인연 펴냄
1만5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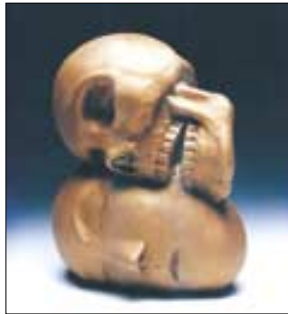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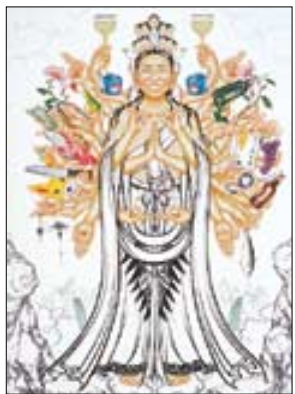


사진 위부터 서은애의 '생활 심일면 천수관음도', 오순환의 '민불', 이일호의 '생과사'

박생광·김기창·중광 스님 등 禪에 취한 미술가 50인 삶과 불교, 작품세계 다양한 에피소드로 엮어

‘예술가는 수행자나 다름없다. 그들은 예술이란 깨달음을 얻기 위해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던진다. 그래서 작가들 대부분은 자신의 작업을 일종의 수행 과정과 동일시한다.’

박영택 경기대 미대 교수(43·미술평론가)가 선(禪)에 심취한 미술가 50인을 만난 뒤 그들에게 느낀 공통분모다. 박 교수는 그림을 그리거나 조각을 하는 예술가들의 작업 과정을 지켜보면서 작품을 만들어 내는 이들의 열정이 성불(成佛)하고자 사찰에서 정진에 힘쓰는 스님들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음을 발견한다. 그리고 그가 만난 대부분의 예술가들이 꼭 불교 신자가 아니더라도 작업의 주제를 설명하는 단어로 인연, 업, 윤회, 순환, 상생 등 다분히 불교적 사유에 해당되는 키워드들이 많다는 사실도 알아낸다.

최근 박 교수가 펴낸 <나는 붓을 던져도 그림이 된다>는 바로 이 시대를 대표하는 정상급 작가들이라 표현해도 무방한 50인 예술가들의 삶과 작품 세계를 조명한 책이다. 특히 불교를 소재로 한 작품들을 중심으로 소개돼 있어 불자들에게는 더욱 더 친근하게 다가온다.

이 책에는 유명 사찰에서 한번쯤 마주치게 되는 탱화나 불상 조각들을 제작한 작가의 설명과 작품 세계도 담겨 있어 정보 제공의 역할도 함께 해준다. 작가들도 박생광을 비롯해 김광민, 김아타, 김호준, 백남준, 홍선운 등 근현대 작가들이어서 일종의 ‘근현대 불교작품 100배 즐기기’란 부제를 달아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다.

예를들면 속리산 법주사에 가면 만날 수 있는 ‘미륵대불’은 한국 최초의 근대 조각가인 김복진(1901~1940)이 만든 것이다. ‘미륵대불’은 40세라는 젊은 나이로 운명을 달리한 그가 말년에 제작한 것인데, 일제 식민지 시대에 살면서 민족 해방의 꿈을 다분히 초월적인 미륵의 세상에서 이루고자 하는 염원을 담은 것이라고 지은이는 설명한다.

운보 김기창(1914~2001)이 그린 ‘새벽 종소리’는 지은이에게 들리지 않는 소리를 화면에 절묘하게 가시화한 작품으로 기억된다. 지은이는 회고한다. 운보는 이 작품을 발표하며 “충청도의 어느 사찰에서 하룻밤을 자고 새벽 종소리에 잠이 깨 절간을 거닐다가 문득 영감이 떠올라 그렸다”고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운보는 알다시피 정각 장면에 화가다. 귀가 어두운 사람이 종소리에 깨는 사람이 이상해서 지인이 “어떻게 종소리를 들었냐”고 묻자 운보는 얼른 펜을 잡더니 “꼭 보아야만 사물의 실체를 아는 것이 아니요, 꼭 소리를 들어야만 깨는 게 아니다”는 선문답 같은 글을 써놓았다고 지은이는 말한다.

이외에도 이 책에는 다양한 삶의 에피소드들도 등장한다. 한국 근대 미술사에서 박수근, 이중섭과 함께 천재화가로 꼽혔던 장욱진(1917~1990)은 어느 날 자신의 부인에게 초상화라며 작은 불상 모습을 그린 ‘진진묘 보살’을 건넸다고 한다. 특히 이 작품을 그릴때에는 수행 하듯이 7일 동안 밥 한 숟가락, 물 한 모금 입에 안대고 날밤을 세웠을 정도로 열정을 바쳤다고 지은이는 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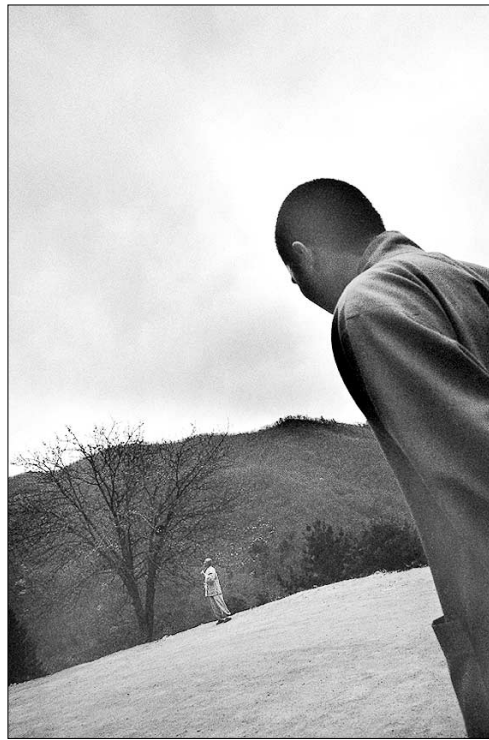
광기의 예술가로 불렸던 중광 스님(1935~2002)은 항상 무애의 자유 속에

서 그림을 그렸다고 한다. 그것은 “나는 붓을 던져도 그림이 된다”는 평소 스님의 말에서도 잘 알 수 있는 것이다. 스님은 왼손, 오른손을 자유자재로 구사하면서 글을 쓰고 그림을 그렸는데 절대절명의 필법을 무시한 채 거꾸로 필선을 진행해도 아름답고 기운찬 글이 됐을 정도라고 한다.

‘인생은 공, 파멸’이란 말을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권진규(1922~1973)는 인생이 공(空)이라는 사실을 절감하고 그러한 삶 속에서 산다는 것과 작업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늘 자문하며 작업한 조각가라고 소개한다. 특히 권씨는 말년에 불교를 열심히 신봉했는데 그것은 죽기 직전에도 잘 나타난다. 자살을 결심한 그가 신변을 정리하고 경상도의 어느 절에 내려가 며칠간 묵으면서 친하게 지내던 스님과 마지막으로 많은 대화를 나눴을 정도라고 한다. 또 선을 형상화 하려고 노력했던 조각가 조인구의 삶도 자못 흥미롭다. 출가한 형님을 둔 목심한 불자인 조씨는 번잡한 사사로운에서 벗어나 낮에는 돌을 쪼면서 생각에 잠기고 밤에는 좌선을 하는 것으로 유명하다고 지은이는 소개한다.

이처럼 이 책은 딱딱한 작품 해설이 아닌 구성이 다양한 에피소드 중심으로 엮여져 있어 미술관련 책이라도 읽는 재미가 쏠쏠하다. 책장을 덮고 나면 책을 읽은 것이 아니라 근현대 불교작품들을 큐레이터의 안내로 총 망라해 모두 감상한 느낌이 든다.

김주일 기자 jkim@buddhapia.com



이갈철의 '해탈을 꿈꾸며'



운보 김기창 작 '새벽 종소리'



아들, 일어나
베리 날 카우프먼 지음 | 최영희 옮김
열린출판사 펴냄 | 9천원

영화 ‘말아톤’이 개봉했을 때 주인공 초원이와 같은 장애를 가진 몇몇 아이들과 관람을 하며 내가 소망했던 것은 ‘이 영화를 통해 세상 사람들이 자폐를 이해했으면’ 하는 것이었다. 장애인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이해도가 낮다는 현실에 대해서는 특수교사인 나 자신도 ‘포기’ 수준에 이르렀지만, 이 영화를 보는 동안 나도 한 인간으로서 갖는 감동에 가슴이 뜨거워졌다.

지난 해 나는 기회가 닿는 대로 학부모님들과 지인들에게 ‘아들 일어나다’란 책을 선물했다. 이 책의 내용은 자폐아를 정상아로 만들어 낸 한 가족의 실패로 미국의 고등학교에서는 토론 주제로 많이 쓰이기도 했다.

베리 날 카우프먼과 사마리아의 행복은 세 번째 아이이자 첫 번째 아들인 라운이 태어나는 순간 절정에 달했다. 그러나 그 행복은 라운이 태어나면서부터 허약하고 알 수 없는 염증을 앓는 등 불길한 징조들을 겪으며 조금씩 긴장으로 바뀌어 갔다. 그러한 1년이 지나면서 라운이 자폐아 증상을 보일 때 긴장은 극점에 달했다. 그러나 부부는 아이의 불행은 인정하지 않았다.

포기하지마 당신은 위대하다

“우리는 라운의 행동양식이 굳어지기 전에, 주위에 가까이 다가가는 것을 어려워하는 그 애가 심각한 감정 문제를 유발시키기 전에 그리고 그 애가 지닌 평화와 기쁨이 순박하고 때 묻지 않은 동안에 이계일이 끝나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자폐아를 둔 많은 부모님들에게 이 대목은 매우 중요한 교훈이다. 이 책의 저자인 라운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아들의 불행을 인정하지 않음에서 ‘라운의 기적’은 싹을 틔웠다. 전문가들, 의사나 간호사, 심리학자들이 지식과 관습의 울타리 안에서 라운의 상황을 자폐로 인정하려는 것을 보며 분개하는 부모의 사랑을 하늘을 감동시킨 것이다.

라운의 부모는 자폐증상은 단지 특별한 뿐이고 반드시 고쳐질 수 있다는 믿음으로 서로의 역할을 나눈다. 아버지는 타치는 대로 책을 읽고 도서관을 찾아 자료집과 보고서를 탐독한다. 그리고 어머니는 24시간을 라운과 함께 보내며 그야말로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하고 기록하고 분석한다. 그리고 밤늦도록 부부는 아이의 상황에 대해 토론하고 또 다른 방법을 모색한다. 날마다 일지를 작성해 비교하고 분석하기를 잊지 않으면서 친절할 주위 사람들과 함께 유용하다고 판단되는 모든 프로그램을 실행한다.

그러면 어느 날 라운이 냉장고 앞에서 우는 모습을 연출해 낸다. 그것은 바로 튀김을 먹고 싶다는 적극적인 자기표현이었다. 이로부터 라운의 기적은 탄력을 받게 된다. 사실 그것은 기적이 라고 말하기 보다는 원래대로 돌아갔을 뿐이라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 본래로의 환원에는 많은 것들이 필요하지 않았던가? 눈물과 믿음과 사랑... 가장 큰 영감원은 바로 희망이었다.

“기적의 주인공 라운은 이 책의 머리말에서 중요한 메시지를 던진다.

“포기하지 말라,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위대한 것을 가지고 있다.”

노보명(서울정신건강연구소)

불교를 쉽고, 재미있고, 유익하게...

제23기 불교레크리에이션 2급 전문지도자 과정 모집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에서는 각 사찰에서 어린이·청소년 법회를 지도하시는 스님, 법사님, 선생님 그리고 각 분야의 포교 일선에서 활동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 매년 전·후반기로 나누어 불교레크리에이션 2급 지도자 과정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과 전문강사들로 새롭게 짜여진 이번 23기 강좌는 어린이·청소년 교화와 포교에 자신감 고취는 물론, 생활의 즐거움이 2배로 늘어나며, 불교를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는 훌륭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 기간: 불기 2549(2005)년 3월 28일~ 6월 2일 (종합실습 포함 총 72시간)
- 강의 시간: 매주 월요일·금요일 오후 7시~9시 30분
- 장소: 서울노인복지센터 (3호선 안국역 5번 출구 100m)
- 대상: 만 18세 이상으로 불교레크리에이션에 관심있는 불자
- 강좌 내용: 이론·레크리에이션개론, 진행의 실제, 모임진행법
교리부문 - 포교론, 포교방법론
댄스부문 - 포크댄스, 레크댄스
음악부문 - 노래 지도법(싱어송), 찬불가 & 율동
생활부문 - 미술, 풍선데코레이션, 특강
게임부문 - 실내·실외게임, 전래놀이, 게임 진행의 실제
- 참가비: 350,000원 (교재, 재료비, 실습비 포함)
- 온라인접수: 국민은행 006-01-0801-770 / 농협 053-02-177171
예금주 -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김계성)
- 문의: ☎ 02)738-7860, 739-4967 / FAX 02)738-7863
홈페이지 http://www.burec.org / 다음카페 http://cafe.daum.net/burec

- ※특전: - 수요강좌 무료수강(강의 기간 내)
- 교재 행사(이벤트) 참여 기회 제공
- 2급 지도자 응시자격 부여(과정 60시간 이상 이수자)

대한불교조계종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

이제 연등에 번잡한 풀칠이 필요없습니다!!

우리 불교 전래의 조립식 팔각등

가격 동결 단행!!

어려운 사찰의 경제에 도움을 드리고 국산품을 애용하시는 운동에 동참하기 위해 가격을 동결 하였습니다.



★ 제작이 간편한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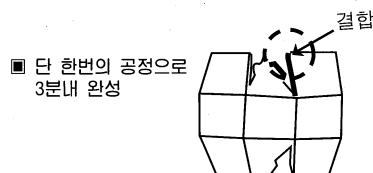
종래의 철골 구조에 날장으로 풀칠이 하던 등제작이 '현반의 공정'으로 아름답고 멋스러운 등, 이 3분내에 완성.

★ 야외장엄용

‘특수 이중 합지방식’에 코팅 처리, 불행이 일어났을 때 안전을 위한 견고성을 지니고 있어 ‘행사 수일 전부터 사찰의 축제 분위기’에 활용

★ 운반 및 보관 용이

‘운반 및 보관이 편리’ 하도록 고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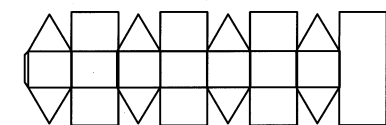
★ 형형색색의 문양과 미감

고려시대 연등회, 팔관회의 고증을 토대로 ‘형형색색의 단청 문양과 현대적 감각의 색상을 조화’ 하여 불초의 의미와 종생의 불심이 더욱 고취될 수 있도록 디자인.

★ 경제적인 가격

종래의 복잡한 다원화된 유통 구조로 인한 높은 가격을 배제한 ‘사찰을 위한 경제적 가격’.

■ 펼친 상태 (골조 및 인쇄결지 합지 방식)



현우기획

전화: (043)877-6464 팩스: (043)877-8239 핸드폰: 016-552-9360

■ 우체국 013706-01-003311 예금주: (주)국민포인텍
■ 농협 415051-51-000075 예금주: (주)국민포인텍